

## < 녹 취 문 >

과제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채록		
구술자	한규섭		
면담자	강인형	면담지원자	김용경
면담일시	2025. 7. 30.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녹취문 작성자	강인형	회차	2회차

### 1. 시작멘트 : 일시 및 리드멘트 (00:00:00~00:13:04)

면담자: 선생님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고 12번 질문 때 간단하게 써주시는 걸로 할게요. 시작 할까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 면담은 옛 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 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구술해 주실 분은 한규섭 선생님이십니다. 일시는 2025년 7월 30일 수요일이고 장소는 학산문화원입니다. 면담 진행은 강인형이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 근황을 여쭙보면서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 2. 근황과 생애 (00:13:05~00:27:37)

면담자: 현재 (주)동흥 경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일별 일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아닌데,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했지. 지금은 골프하고, 헬스 좀 하고 1)그닥.

면담자: 다양합니다.

구술자: 취미는 뭐 그렇게, 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고, 특별한 건 없어요.

면담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나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니까, 격일제로 하니까, 퇴근하면은 한 6시 반에 교대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한 40분, 45분 되면은 그때는, 퇴근하고 바로 그냥 헬스장 가요. 일단 헬스장 가서 한 30~40분 하고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가서 또 거기서 한 3, 40분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내가 지금 우리 큰딸하고 살아요. 그래서 손주들이 있거든요. 손주들을 학교에 내가 태워다 주고, 끝나면 데리고 오고, 일과가 그래요. 지금은, 방학해서 한가한데,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스크린 골프, 몇 사람 어울려서 치고, 어찌다가 필드 나가자고 그러면, 한 번 나가고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내가 지금 혼자라기보다도 내가 싱글이라고 그럴까? 주위에 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막

1) '그다지'의 이형(異形)으로 '그다지'가 표준말이다.

와요. 내가 굳이 약속을 안 잡아도 밖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쓸데없이 바빠요.

면담자: 네 감사합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1956년에 태어나셨고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서울에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고향은 서울이신 거죠?

구술자: 예 고향은 서울입니다.

면담자: 초중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초등학교는 2)전곡초등학교, 전곡국민학교지 옛날에. 서울 전농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답십리 그쪽인데 전곡국민학교라고, 거기 계속 다녔죠. 중학교는 동대문중학교 다녔고, 그리고 동대문중학교가 이게 동대문상고, 상업고등학교로 이어져요. 나는 적성에 안 맞더라고, 막 우리 어렸을 때는 주판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난 상고 안 간다고, 공고 갔어요. 지금은 단대 부속 고등학교인지 단대 병설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공고였어요. 단국공고, 한남동 단국대학교 캠퍼스 그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단국공업고등학교 나왔고. 지금은 그게 인문계가 됐는지 공고가 없어졌더라고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면담자: 가족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우리 부모님은, 아버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98세, 24년생이신데 장수하셨죠? 어머니는 31년생이신데 지금, 생존해 계시고, 바로 밑에 여동생 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여동생이 모시고 있고. 그리고 내 애들은 딸이 둘, 큰딸은 결혼해서 애가 셋이고, 개네들은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Campus couple). 사위하고 한 7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 개네들은 애 낳고 잘살고 있는데, 작은딸은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아주, 선언하고 혼자 지내고 있고.

면담자: 네 그러시군요. 서울에서 지내시다가 1981년 동양화학 취업으로 인천 거주를 정하셨는데, 그 당시 인천과 서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서울은 그래도 대도시 느낌이 나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뭐 학교 졸업하고 친구들 대학교 가고, 재수하고. 그 시절에 우리는 그래도 서울 번화가를 막 돌아다녔는데 모르겠어요. 인천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신포동이 그때 제일 번화가였는데 서울의 명동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일단은 명동은 을지로 입구라든가 명동 이쪽은 꽤 도로도 넓고 사람도 많았거든요. 여기 와 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인천에 왔더니 백화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희망 백화점인가 그게 생기고, 나중에 동인천역에 인천 백화점이라고 생겼는데 서울 백화점하고는 좀 규모가 좀 다르더라고. 확실히 그때만 해도 인천이 많이 낙후돼서 발전을 못했어요. 이제 위성 도시가 돼서 그렇더라고요. 서울만 해도 그때는 백화점이 신세계도 있었고, 미도파도 있었고 지금은 롯데백화점도 있지만, 그리고 이 동양화학 앞에는 내 기억에는 그냥 무슨 저, 뭐야 탄광 같이 느껴졌어요. 도로도, 주변이 막 시커멓어. 이게 뭔가? 내가 모를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그게 보니까, 동양 공장 터였더라고 그 앞에 도로도 그렇고, 그때 기억이 아주 좀

---

2) 1942년 서울청량국민학교로 개교, 1961년 서울전곡국민학교로 12학급 분리 후, 1996년 서울 전농초등학교 개칭하였다.

시커멓게 느껴졌어.

면담자: 그다지 유쾌한 광경은 아닌 거네요?

구술자: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좀 이런 변화한 도시라기보다도 좀 변두리에 무슨 뭐야 무슨 탄광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하여간 그 막 무연탄 같은 거 막 쌓아놓고 그런 느낌으로.

면담자: 그러셨구나. 그러면 본가에 자주 그래도 가셨잖아요?

구술자: 그때요? 그 당시에 네 그럼요. 그때는.

면담자: 어떤 이동 수단이었고, 그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구술자: 전철이었죠. 경인선 1호선.

면담자: 그럼 어디서 타셔서 어디서 내리셨나요?

구술자: 청량리에서 타서 주안역에서 내렸지.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7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동창들은, 우리 때는, 전부 시험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 동창들은 나보다 한 살, 두 살이 다 많아. 제대로 들어가는 애들은 55년생 나하고, 또 나이가 1살 많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1년 뛴 애들은, 재수한 애들은, 나보다 2살이나 많아. 그런 식으로 나는 7살에 들어가고 내가 제일 어렸죠. 근데 내가 7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2월에. 그해 8월 15일에 광복절 기념식 할 때 3)육영수 여사가 죽은 거예요. 그 광복 기념회 할 때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암살하려고 문세광이 객석에서 뛰어나와서 총을 쏘다가, 하여간 지금도 뭐 그건 미스터리인데 경호원들 총에 맞았다, 이런 말도 있고,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았다는데 육영수 여사가 그날 죽었어요. 근데 그날이 인천 지하철, 4)경인 지하철 1호선 개통하는 날이야. 그날이 74년 8월 15일 내가 졸업한 해니까, 내가 맞아. 74년 8월 15일, 내가 졸업한 해라, 잊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 예전에 역사 공부하고, 역사 배울 때 보면 정이품송이, 왕이 지나갈 때 정이품송 나무가 올라가서 길을 터줬다든가 뭐 그런 귀한 일이 많잖아요? 내가 그날 어떤 걸 겪었냐 하면은 8월 15일이니깐 이렇게 더운 날이었잖아요. 여름이니깐, 그리고 엄청 맑은 날이었었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하늘이 시커메지더라고 먹구름이 끼듯이 짝 나서 소름 끼쳐. 먹구름 끼여 짝. 햇볕이 짝 가려져요. 그늘이 막 지면서, 구름이 막 몰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짝 그치더라고

면담자: 어디서요?

구술자: 그거는 그냥 길에서. 서울에서. 그때는 서울에 있으니까 나, 그래서 난 가끔가다, 그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에게 육영수 여사 죽을 때 내가 그런 걸 봤다. 옛날에 전설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물론 기상이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일치가 될

---

3) 8·15 저격 사건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권총을 쏘, 영부인 육영수 여사 등이 사망한 사건이다.

4) 1호선은 1971년 4월 12일 착공하여 1974년 8월 15일 청량리역~서울역을 잇는 9개역 7.8km 구간이 개통하였다. 1호선 개통과 함께 청량리역~성북역, 서울역~인천, 수원 간 철도가 복선 전철화되어 직결됨으로써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이 되었다.

수 있었겠지만은, 하여간 난 그 당시에 그걸 느꼈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확 어두워졌다가 짝 걷히더라고. 그날 옥영수가 죽었어. 총 맞고

면담자: 그럼 청량리에서 주안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구술자: 1시간 한 10분, 15분 걸린 것 같은데. 그때는 역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다지 멀지 않았어. 역이 많지 않았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 안 됐을 거예요.

면담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또 거기서 직장 생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오셨는데 인천에 어떻게 적응하시는 게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적응하셨고 어떤 게 어려우셨어요?

구술자: 그러니까 일단은 교대 근무. 먼저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저녁때 퇴근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여기 왔더니, 교대 근무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일단은 뭐 작은아버지 소개로 해서 왔고 하니까, 일단 다녀는 봐야 된다. 당장 뭐 싫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했는데 한 2년 동안 고생했어요. 적응이 안 돼서 밤에 잠 안 자고 일하고 이러니까, 위에, 위장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속이 쓰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5)암포젤(Amphojel)이라는 파란 병에 하얀 위장약이라고, 그거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암포젤(Amphojel) 두 병을 사다가 병이 이만해요. 파란 병에 하얀 위장류라고. 요새로 말하자면 겔포스 같은 거, 그런 현탄액이 들어 있고. 그걸 집에다 하나, 회사에다 하나 놓고 그거 먹었어요. 2년 동안, 2년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돼.

면담자: 다행입니다. 그럼 혹시 좋았던 점도 있으셨을까요?

구술자: 좋았던 점은 나는 평일에 쉬면서 복잡하지 않을 때, 왔다 갔다 내가 볼일 보러 다니고 여행을 가도, 막 어디 잠깐 다녀와도, 평일에 다니고 그런 건 참 좋더라고. 남들은 주말에 막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러니까 막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평일에 막 다니니까 그런 거.

면담자: 주로 6)신포동으로 가셨나요? 그때?

구술자: 그때는 서울로 갔어요. 거의 인천에서 안 놀고 친구들이 전부 서울에 있으니까, 인천에 있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 3. 직장 생활을 하며 (00:27:38 ~ 01:44:47)

면담자: 그러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동양화학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이것도 옛날, 얘기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직장이 있어

---

5) 암포젤정은 과량의 위산을 소화에 알맞게 중화시키며, 궤양 염증 부위를 피복. 보호함으로써 위산과다,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염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6) 80~90년대 인천 중구 신포동은 인천의 중심상권이자 상징이었다. 경동사거리 입구에서 지금은 없어진 금강제화 매장까지 이어지는 패션 거리(신포 문화의 거리)는 인천의 가장 변화가로 인천의 명동으로 불리며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파로 붐볐다. 하지만 90년대부터 주안과 구월동, 부평, 송도국제도시 등으로 중심상권이 이동하면서 신포 문화의 거리는 서서히 황폐화되었다.

요. 주식회사 흑립기계라고. 거래처가 탄광, 화차라든가, 석탄 신고 뭐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걸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올라갈 때 우리는 시험을 봤어요. 진학반 시험을. 공고 기계과를 들어갔는데 2학년 올라갈 때 학교에서 그 진학반을 만들면서 시험을 봐서 그때, 한 50명인가, 40명인가 이렇게 추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독서실에서 인문계 수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담임이 2학년, 3학년 한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만 해도 대학을 갈 생각도 하고, 그런 저거를 했는데 이 중간에 좀 집에 좀 저거 해서 결국은 못 갔는데, 실력도 달렸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 한 7, 8개월 놀다가, 흑립기계에 들어간 계기가, 내가 공고를 나왔는데, 공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2학년, 3학년 인문계 수업을 받았으니까. 그런 이력서나 뭐 꼬리표는 항상 공고 기계과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우리 큰 집에 제일 큰 매형께서, 그때 삼천리 기계인가 거기에 설계 과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한양공대 나왔는데, 그 매형 동창분이 이 회사 전무로 있었어. 그 당시에, 동창한테 부탁해서 날 갖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기를. 근데 뭐를 무슨 목적으로 집어넣어 줬냐면 내가 공고를 나왔으니까 기계 제도를 이제 배워라.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우리 매형이 자기 밑에 쓸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런 계통이니까, 설계 과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뭐 배울 저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뭐 그 당시에 보면 전문대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막 기사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자기 제도하고, 자기 도면 그리기 바쁘지, 날 가르쳐 줄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고, 카피하고. 그걸 가르치려고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매형 친구분이 안 되겠으니까 나를 자재과, 구매 담당으로 빼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매를 맡아서 한, 3년 좀 안 되게 직장 생활을 한 거지. 그러다가 군대에 간 거죠. 그리고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도, 뭐 또, 그때 박정희가 죽고 나서, 내가 군대 말년에 박정희가 10.26 때 죽고 나서, 5월 8일에 내가 제대를 했어요. 5월 8일에 제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가 정권 잡은 시기니까 경제가 아주 좀 안 좋았어.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뭐 자재과, 구매 담당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서, 어디 취직도 할 뻔했는데, 하여간 안 돼서, 몇 개월을 또 놀았어요. 그러다가, 오류동에 대원광업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도, 공고 기계과가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보반이라는 데에 들어갔어요. 그 오류동 대원광업이라는 데, 거기가 본사고, 제1 공장 공장이 같이 있거든. 서울, 오류동에. 그런데 기보반이라는 데 발령을 내더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기보관이 뭔가 했더니, 기계 보수반이래. 거기서도 뭐,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거기는 또 일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쇠를 다루는 저거라서, 자동차 스프링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그리고 전철 시트 만들고, 그 시트 만드는 데는 여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가보지 못했는데 여자들이 많이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기보반이라는 데 있어서, 거기서도 뭐 완전히 그냥 잔심부름하고, 그냥 보조 역할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여간 우리

매형이 거기 다니다가 나와서 사업을 했거든요. 자기 동기들이 그때 과장, 부장이고 자기가 모셨던 분이 공장장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소개를 해서 나를 넣어준 거야. 나를 영업부로 빼준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빼준다고.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근무했지 뭐. 근데 1년도 채 안 돼. 한 10개월 정도 근무했나? 거기서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꼭 늦게 나와요. 25일이 월급이다. 그러면, 26일, 27일에 나와. 그리고 보너스가 한 400% 나왔는데, 200%밖에 안 나오고.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동양화학 서무과에 계셨어요. 우리 막내 삼촌께서 여기 인천에 내려와라. 이 동양화학은 빛이 하나도 없는 회사라, 걱정할 게 없고, 보너스 400%, 꼬박꼬박 나오고, 월급도 7따박따박 나온다. 그래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는 돈이 최고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내려와서 보니까, 교대 근무인 거지. 한 2년 고생하고 그다음부터 적응해서 잘했죠. 우리 작은아버지도 나를 연구실인가 뭐 이런 연구과, 실험실 그런 쪽으로 빼주려고 그랬던 모양이야. 나중에. 근데 그렇게는 안 됐고, 근데 나는 차라리 안 갔던 게 나았을 것 같아. 그건, 내 전공도 아니고 내가 무슨 화학? 화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가서, 괜히 고생하고 헤매고 뭐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현장에서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득이 되지 않았나, 정년퇴직까지 했으니까. 정년퇴직하고 또 한 2년을 더 촉탁으로 있었으니까요.

면담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양화학의 첫인상은 탄광으로 기억하시나요?

구술자: 그런 느낌. 시커먼 느낌밖에 안 들었어. 도로고 뭐 다 시커멓고, 공장들도 막 잿빛이고 그런 식으로.

면담자: 네. 동양화학의 첫 부서 8)동력과는 동양화학의 5개 메인 플랜트(Main plant), 9)라인 플랜트(Line Plant), 10)타워 플랜트(Tower Plant), 11)칼시아나 플랜트(Calciner Plant), 12)솔트 플랜트(Salt Plant), 동력 플랜트 중 하나인데 동력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우리는 이제 유틸리티(Utility) 서비스(Service) 파트(Part)예요. 그래서 동력과는 발전소하고 압축실로 구분돼 있는데 우리는 압축실에서 근무하고 말하자면 생산하는 공정의 각 플랜트(Plant)에 필요한 가스(Gas), 에어(Air), 공업용수, 냉각수 뭐 그런 걸 공급을 해주는 플랜

7) 또박또박의 경북 방언이다.

8) 인천 동양제철화학(현 OCI) 공장은 5개의 '메인 공장(Main Plant)' 체계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는데, 동력공장은 자체 열병합발전(Cogeneration) 설비를 보유, 고온 폐열 회수, 전기 및 스팀을 직접 생산하여 각 공장으로 공급하였다.

9) 공정 흐름의 핵심 생산 라인. 주로 소다회 생산을 위한 암모니아-소다 공정(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반응시켜 탄산나트륨 생성)을 담당하였다.

10) 탄산가스 흡수, 분리, 응축 등 타워식 분리장치가 주력 설비로 사용됨. 일반적으로 흡수탑, 결정탑, 정제탑 등이 설치되어 주요 반응 및 정제 과정이 이루어졌다.

11) Calcination 공정을 수행, 중탄산나트륨(NaHCO<sub>3</sub>)을 가열하여 소다회(Na<sub>2</sub>CO<sub>3</sub>)로 변환하는 고온 처리, '칼사이너'는 회전식 가열로(킬른)가 핵심이다.

12) 소금(염화나트륨, NaCl) 처리 및 공급 공정, 보통 염수 정제, 불순물 제거, 전해액 처리, 이온교환막 전해 전처리 등을 포함하였다.

트(Plant)죠. 압축실이라는 게, 이게 콤프레샤(Compressor) 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소위 이런 소형 콤프레샤(Compressor)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계예요.

면담자: 규모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구술자: 규모요? 기계 하나가 이 방만해요. 톤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그때 캐파(Capacity)로 따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기억이 안 나네.

면담자: 500<sup>13)</sup>마력에서 1000마력 사이였나요?

구술자: 마력이 그냥 더했나? 나 모르겠는데 난, 이 숫자 개념이 없어요.

지원자: 마력, 그러니까 보통 1200마력 그때 당시에는 한 500에서 1000 사이였을 거예요.

구술자: 그 기계가 좌우지간 4대, 그리고 작은 거 2대, 총 6대가 있었어요. 메인 프로젝트(Main project)는 스케일(Scale)이 커요.

지원자: 그때 다, 몇 년도에 하셨죠?

구술자: 저 90년도 말에.

지원자: 전기 쇼트는 안 나요?

구술자: 돌아가는 거는 한, 두 대 정도 돌아가고, 두 대는 스탠바이(Standby)로.

면담자: 압축실에서 3교대 근무하셨잖아요? 오전, 오후, 야간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07시 20분부터 15시까지 오전이, 오후가 15시부터 22시 15분까지, 야근이 22시 15분부터 07시 20분까지. 이때 내가 할 때만 해도 우리 회사에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통근버스가, 간석동 방향, 부평 방향으로 근무자들을 태우고 다녔죠.

면담자: 몇 대 정도 있었나요?

구술자: 하나, 둘, 세 대, 큰 대형 버스 3대하고 작은 게 두 대 있었나? 이 그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동양화학이 아니라 하나는 또 한불화학이라고 동양화학 계열사가 있었어요. 프랑스하고 50대 50 합작해서 하던 한불화학, 그쪽 차하고 해서 같이 로테이션(Rotation), 같이 운행을 하는 거죠. 어차피 다 같은 계열사니까 그런 식으로.

면담자: 4조 3교대 근무 요일별 순환 방식에 대해 달력에다 표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1985년 4월 달력을 건네며].

구술자: [받아든 달력에다 기입을 시작하며] 4일짜이요. 그러면 일단 오후 근무부터 할게요. 15시부터 22시 15분 이걸 4일을 해요. 그럼 이걸 땡땡, [ / 표시로 적으며]으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4일 하고 휴무하고 밤에 끝냈고, 그다음에 하루 쉬고, 그다음에 07시 20분 오전 근무 15시에 퇴근하는 거, 이걸 또 4일 하고요. 그리고 휴무 그리고 이제 이날 그다음 날 쉬고 그다음 날, 22시 15분에 야근 출근하는 거예요. 07시 20분 이걸 또 4일을 하는 거죠.

---

13) 마력(馬力, hp, ps)은 일률의 단위로, 1마력은 이것이 설정된 1765년 당시 영국산 말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일률이었다.



면담자: 서로 하겠다는?

구술자: 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주는데, 그 사람이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한 조에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레벨이 맞는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리라고 그래서, 해줘요.

면담자: 그러시군요. 혹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3교대 근무하시면서 2년간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자: 그렇죠. 결국은 시간이, 해결을 해줬는데 주위에 이 교대 근무 적응을 못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서 아무래도 생활 리듬이 깨지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못 자고 하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내가 밤잠이 없어요. 그냥 보통 평상시에도 내가 새벽 1시, 12시 돼야 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남들보다 적응을 잘했지. 그 대신에 아침잠이 많아서 늦잠을 자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야근하면서,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는 올나이트(All night)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그냥 밤을 새우냐고요? 아무리 밤새우고 안 잔다고 그래도 중간에 졸려서 끄떡끄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재량껏 반씩 나눠서, 근무를 서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이 동력과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예전 이니까, 우리가 필드 뛰면서 신입사원일 때는,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야근할 때는 들어가 있었고, 주간, 아침 근무할 때는 밖으로 돌고, 기계 확인하고, 기계 청소하고, 막 이랬다고. 진짜 경유를 걸레에 묻혀서 기계 닦고 이랬어요, 하여간, 공장이, 그냥 안에 들어가면, 반짝반짝, 기계가 반짝반짝할 정도로, 우리는 그러고 생활을 했으니까. 광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내가 그 위치에 가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밑에 사람들하고 희희덕거리고 장난치고. 옛날 반장들은 아주 무서웠어요. 감히 접근을 못 하고, 회사 쪽에서도 현장 반장들을 무시할 못 했어요.

면담자: 그럼 현장 담당분들은 사무실에 계시고?

구술자: 아니, 공간이 있어요.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워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그 아우라라고 그래? 그런 거, 주눅이 들어가고, 분위기. 그리고 들어오면, 중간 고참들이 교육을 시켜요. ‘안에, 사무실 와서, 앉아 있지 말고 밖에서 일하는 척해라’,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사무실 들어가 앉아 있냐고.

면담자: 아까 말씀하신 그 냉각수 관리하시면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저장해서 사용하셨잖아요? 저장한 바닷물로 카누도 타셨다는 일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술자: 내가 탄 게 아니고, 탄 사람이 뭐야 요트, 카누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요트도 있었는데 그건 요트를 얻어 탄 거지 뭐. 그 사람이 요트 운전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대학생이라든가, 선수들이 연습들 많이 했어요. 거기에 카누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카누, 요트 같은 거,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거 우리 딸도 대학교 때 그걸 했는데 저 혼자서 서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생각이 안 나요. 또 그게 서핑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면담자: 윈드서핑이요?

구술자: 윈드서핑하곤 다르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생각이 안 나.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은 동료가 운전하는 요트 같이 타신 게 기억하시는 거네요?

구술자: 타본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 봐. 물어볼까? [둘째 따님에게 통화 시도하며] 전화 받을 수 있나?

구술자: [둘째 따님과 통화 중] 통화, 가능하냐? 통화 가능해? 그래 너 대학교 때 뭐야 저거 탄 게 뭐냐? 그거 물에서 탄 거? 윈드서핑 같은 거? 윈드서핑 맞냐? 그래, 맞구나. 아니야, 아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알았어. 윈드서핑 맞네요.

면담자: 하신 경험이 있으시구나.

구술자: 아니, 아니, 난 안 했더니까. 거기서 선수들이 와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그 요트 같은 거, 그게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때.

면담자: 사용료도 지불하셨을까요?

구술자: 아니죠. 그런 건 없었어요.

면담자: 지역사회에서, 재밌네요.

구술자: 그게 그때, 요트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회사에서 몇몇 사람이 그걸 탔거든. 회사에서 뭘 지원을 해줬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어. 내가 거기에는 속해 있지 않아서.

면담자: 동력과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파신 기억은 있으세요?

구술자: 그거는 나중 일일걸요? 난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공장 쓰기 바빴을 거고 나중에 캐파(Capacity)가 늘어나면서 남으니까 그때부터 한전에 팔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랬을 거예요.

면담자: 그리고 동력과에 근무하실 때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기억나시는 에피소드(Episode)가 있으실까요?

구술자: 88 올림픽은 나는, 우리 애들 카퍼레이드(Car parade)할 때, 사진 찍어주고,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사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앨범 뒤져다 보니까 그 88 올림픽 때 찍은 사진들이, 쪽 있더라고? 퍼레이드(Parade) 하는 거, 그 기억밖에 없어요.

면담자: 동양화학과 관계되는 기억은? 관심 있는 종목을 같이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보셨다거나 그런 기억도 없으세요? 88 올림픽 때 좋아하시는 종목 경기를 하잖아요?

구술자: 보기가 봤는데 그렇게 기억에 안 남는.

면담자: 네. 그리고 두 번째 부서는 망초 생산 부서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이거는, 화학 공장 생산 현장은 다 똑같아요. 원료를 투입해서, 믹싱해서, 뭐라 그럴까? 끓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건 농축시키고 그러니까 압축, 농축시켜서, 그걸 또 말려서 드라이해서, 파우더로 해서 생산하는 건데, 대부분의 파우더 공장들은 메인 플랜트(Main Plant)하고 공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플랜트(Main Plant)는 말하자면 스케일(Scale)이 크다 보니까 공정 하나가 공장이 돼버린 거고, 이 망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대신에 이 메인 플랜트(Main Plant)의 공정이 그대로 축소판으로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면담자: 여기서는 반장 하셨어요?

구술자: 네. 반장 발령을 받고 이쪽으로 간 거죠. 우리 동년배들이 자꾸 정체가 되니까, 내 앞 사람은, 내 뒤에 사람이구나! 나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은, 군산으로 일찍 내려갔어요. 군산으로. 그러니까 인천에 어디 마땅한 데가 없어서, 군산으로 발령이 나고, 군산으로 가고. 나는 그냥 인천에서 발령받고 인천에서 그냥. 중간에도 구조 조정하고 그러면서 사람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지방 공장으로 많이들 갔죠. 근데 그나마 거기서 좀 뭐라 그럴까? 소위 말로, 짝한 사람들은 지방도 못 가고 권고사직할 때는, 그런 게 있었지.

면담자: 그게 몇 년도예요?

구술자: 90년대쯤 됐을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 반장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구술자: 반장은 결국은 내가 입사해서 하던, 밟아왔던 길을 총괄 책임을 하는, 현장 책임을 지는 거죠. 일은 똑같은데, 반장은 말하자면 자기 조원들 컨트롤(Control) 하고 서포트(Support) 해주는.

면담자: 조원이 몇 명이셨어요?

구술자: 여기 망초 공장이에요? 망초 공장 맨 처음에 갔을 때는 하나, 둘, 셋, 네 명이었나?, 4명 정도 있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망초 공장이 하나였나요? 동양화학에서 망초 공장이 하나였나요?

구술자: 망초 공장이라는 건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건 각 플랜트(Plant) 별로 따로따로 있어요. 그 품목에 따라서 그 품목만 생산하는 공장.

면담자: 그리고 기록에 보면, 1987년 인천 공장에서 염산이랑 가성소다 생산 과정에서 자연 발생된 망초를 연간 2만 톤 생산했다고 되어있거든요? 무수망초 작업량이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구술자: 일, 몇 톤으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많나?, 양이?

면담자: 연간 2만 톤?

구술자: 연간? 그렇지? 연간이면은 얘기가 되죠. 연간이면 얘기가 돼.

면담자: 다른 공장에 비해서 작업량이 많았나요? 아니면은 평균 수준이었는지?

구술자: 다른 공장에 비해?

면담자: 소다회, 망간 공장 등에 비해서?

구술자: 소다회는 주력 상품이였기 때문에 소다회는 더 많았죠. 소금이 좀 많고 이거는 개별 공장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양이 적고.

면담자: 그럼,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 보니까, 그다지 힘들시지는 않으셨나 봅니다. 그렇죠? 힘들었다면 기억을 하셨을 텐데. 왜 우리 공장은 이렇게 많이 생산해야 돼? 그런 컴플레인 (Complaint)이 있으셨을 텐데요.

구술자: 그거는요. 우리는 힘들다는 개념이 트러블(Trouble)이 난다든가, 그래서 힘들지. 생산에 대해서 힘들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자동화가 잘 되어있어서 모니터 보고 근무하고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물론 필드(Field) 뛰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몸을 써가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일의 강도로 힘들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트러블 (Trouble)이 났다든가, 이머전시(Emergency)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 조치하고, 불량 나고, 이럴 때 스트레스받고 힘든 거지. 육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물론 육체적으로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그런 거는.

면담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기억나는 그 비상 상황,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구술자: 비상 상황이 많죠.

면담자: 가장 기억나는 거?

구술자: 일단은, 동력과에서는 정전이 자주 됐어요. 옛날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기가 일정하게 되는게 아니라, 비가 오고, 천둥 번개 친다든가 아니면 무슨 용량이 오버(Over) 돼서, 정전이 되었다고.

면담자: 한 달에 몇 번 정도였나요?

구술자: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은 정전됐던 것 같아. 기억에. 물론, 없을 때는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냥 정전된다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에 근무하던 사람은, 난리 나는 거지 뭐. 그냥 그걸 다 조치를 해야 되니까, 기계가 다 꺼져버리니까, 전기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또 원상 복구시키고, 그런 종류고. 그리고 망초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공장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라인, 배관 같은 곳에, 스케일 (Scale) 끼고, 그걸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증발관, 결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프 (Pipe)가 공정 중에 증발관하고 결정관이 그 공정 중에 있는데 거기서 열을 가해서 말하자면, 줄이는 거예요. 104도, 106도 이 정도 온도 레벨이야. 압력을 맞춰서 증발시키고, 결정관이 라는 데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말려서 제품으로 나오는 건데. 나중에, 막판에 드라이 (Dry)해서 말리는 건데. 내가 겪은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전됐어요. 정전되면, 이 모든

기계가 꺼지니까, 그 각 탱크에 106도, 104도 팔팔 끓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오프(Off)로 탱크가 넘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뜨거운 물이 배수로 타고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나갔으니까. 그럼 전기가 들어와야, 돌려서, 조치하잖아요?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계를 못 돌리니까. 그때, 전기가 딱 들어와서 내가 현장으로 먼저 뛰어나갔지. 내가 먼저 할 일은, 반장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뛰어나가서 그 스위치 박스 있는 데 가는데, 배수호가 이만한 게 있어요. 가는데 배수로에 발을 푹 담근 거야. 104도 106도 그냥 물도 아니고, 그 공정의 물이. ‘아 뜨거워!’ 그 이쪽 발을 디뎠는데, 이쪽 발도 푹 빠지네. 거기 배수로에. 배수로 위에 철판이 짝 깔려 있거든요? 랜딩(Landing)이라고, 짝 깔려 있는데, 누가 그걸 치워버린 거야. 나는, 거기 당연히 그냥 랜딩(Landing)을 밟았더니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안전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양쪽 발을 다 데었어요.

면담자: 안전화를 신으셨는데요?

구술자: 안전화 신는 건, 뭘 상관이야? 무슨 소방대원들 입는 그런 옷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안전한 구두 같은 거 신고 있었는데, 그냥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거죠. 그때 겨울이었는데, 난 화상의 고통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무지무지하게 아프더라고. 물집이 이만큼이 올라 오더라고요. 수포가 이렇게. 사무실 들어가서, 그 탕비실, 싱크대에다 물 틀어 놓고, 겨울이니 수돗물이 얼마나 차겠어요? 그나마 틀어 놓고 이거 식히는 거야. 그러니까 물 대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대고 있는데,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려고 발을 빼니까 무지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참 미련한 게, 그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그 타월에 물 좀 적셔서, 싸매고 갔으면, 좀 고통이 덜하지 않았나 싶어, 지금 생각해. 그냥 그 아픈걸, 그냥 참으면서 간 게, 옛날 적십자 병원, 송의동, 거기 갔어요. 알코올을 막 뿌리더라고. 그러니까 시원하고 하나도 안 아프고. 알코올로 뿌리니까. 그러더니 핀셋(Pincette)으로 그냥 짝 잡아 뜯더라고, 그거를 소독약, 알코올 해서 막 바르듯, 소독하더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아파서, 그 댄 살 사이를 막, 하니까, 그리고 그냥 약을 바르더니, 붕대를 칭칭 감는데, 열이 후끈후끈 나고, 아파서, 도저히 아파서, ‘진통제 놔달라’고 모르핀(Morphine) 맞고 그리고 견뎌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고 나서, 입원했죠. 입원하고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아침 한 10시 되면 간호사가 끌고 와요. 저기서 복도에서 달달 달달 달 끌고 오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물집에다가 붕대를, 약 바르고 거즈(Gauze)를 붙이고 그냥 붕대를 칭칭 감아서, 이거 풀면, 진물하고 약하고 거즈(gauze)하고 짝 달라붙어서, 그걸 사정없이 떼어 내요. 그냥 의사가 콕콕 잡아 뜯어. 반 죽는 거예요. 막, 막 자지러져요. 그리고 나서 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굽어 냈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거 안 굽어내면은, 흉이 진다고 이 면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짝 굽더라고. 막 그러니, 그 생살을, 댄 살을 막 굽어내니, 그거를 한 열흘 넘게 했나 봐요. 아주, 미치겠더라고.

면담자: 진짜 힘드셨겠다!

구술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보름 지나니까, 견딜만하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끼니때마다 개고기를 사다 주시더라고요. 빨리빨리 나아라. 그래서 14)공상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발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가서 근무하는 게, 겁이 나는 거야.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좀 아픈데, 이거 제대로 근무하려면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회사에서는 ‘이제 출근할 수 있냐?’ 물어보고.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멀쩡히 걷다가, 회사 가면 괜히 아픈 척하고 말이야. 엄살 부리고 좀 며칠 더 늦게 출근하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출근했는데 우리 근무자 하나가, 나중에 나한테 씩 오더라고. 그때 뭐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작업했었어요. 그래서 그 외부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그걸 해놓고는, 제대로 뚜껑을 덮고 가야 되는데, 작업 끝내고 그냥 간 거야. 그런데 마침 정전이 돼서, 물이 차니까, 나는 거기에 랜딩(Landing) 있는 줄 알고, 그냥 밟은 거지. 그 두 발로 다 그런. 그래서 그 업자들이 마무리를 안 했나 보다. 그 사람들을 원망을 했지. 며칠 지나고, 출근하고 나서 우리 근무자가 나한테 씩 오더라고요. ‘반장님’, ‘왜?’,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 ‘뭔데? 말해봐’, ‘그 덮개, 제가 청소하고 덮지 않았어요’. 우리 근무자가, 청소하고 자기가 안 덮었대. 얼마나 고마워. 착하고! 와서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모르면, 나는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고. 그 친구가 했었는데. ‘그래 이번에, 얘기해 줘서 고맙다. 내가 괜히 작업한 사람들을 원망했잖아? 치료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냥 됐어. 얘기해 줘서 고마워’.

면담자: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네요.

구술자: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럼. 한 달 넘게, 그냥 마음고생 했겠지.

면담자: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을 스스로 얘기하시는, 그런 분위기셨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몰라, 내가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나도 근데 못된 게 있어서. 나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불합리하고, 좀 뭐라 그럴까, 알မ်게 노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막 싸웠어요. 따지고. 진짜 합리적이지 않은데, 지, 생각만 하고, 동료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한두 사람씩 꼭 있잖아요? 그냥 막 나쁜 짓 하고 말이야? 남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막 바른소리하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싫어했겠냐고? 근데 나는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진짜 잘해줬어. 특히 우리 조원들이나, 많이, 편의를 봐주고. 예전에 우리 고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당하지는 않았는데, 내 동료가 당했는데, 구조 조정하고 나서 4, 5명이 근무하던 걸 2명이 근무했어요. 나중에는 반장하고 15)보드맨

14) 사전적으로 공상(公傷)은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의미하지만, 실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적 보상을 지칭. 공상처리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15) Boardman, 주로 화학 물질 제조 공정에서 제어판 조작 및 장비 관리를 담당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Boardman), 둘이야, 딱 둘이. 그리고 낮에는 일용자라든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낮에 같이 근무하면서 관리, 기계 체크도 하고,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근무는 딱 둘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마지막에 둘씩 했어요. 한 공장을 두 사람이 맡아서 한 거야. 그만큼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기술 축적이 됐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반장하고 우리 보드(Board) 때 둘이서 딱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피곤하잖아? 근데 우리 선배 반장은, 우리가 보드 볼 때,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재우지 않는 거야. 같이 근무하면서 특별한 일 없으면, ‘야 좀 쉬어라, 좀’, 이라고. 책상에서 앉아서라도 자든가? 졸기라도 하면 되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그 같이 근무했던 보드 친구를 얘기하면서, ‘아 그놈의 자식은, 반장이 안 자는데, 반장도 안 자는데 자기가 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아니 그 자식은, 또 반장이 잔다고 지도 자’.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응? 반장이 자는데 반장이 잔다고 지도 자, 그리고, 반장이 안 자는데 자기가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날 밤새라는 거 아니야? 지는 반장이라고 자도 되고, 지, 마음대로.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냐고? 난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나는 그래서 반장 됐을 때 무조건 재웠어요. 트러블(Trouble) 안 나면, 무조건 한 사람은 12시부터 3시까지 자. 그다음에 3시에 교대해서 6시까지 자. 6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퇴근 준비하면 되고. 그 6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그전에는 별로 트러블(Trouble)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왜냐하면, 그 탈의실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탈의실에서. 원래는 다 불법이지. 원래는 날을 새고,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회사 원칙상으로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냥 들어가 자. 3시간 자고, 딱 교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좀 봐주고, 내가 졸고 싶으면 졸고. 일은 그 사람들이 하니까. 나는 컨트롤(Control)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했거든. 계속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도 그 불만이 많아요. 보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밑에 사람도, 반장 잘못 만나면 힘들고, 저 반장은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으면 퇴근할 때까지 앉아 있다는 거야. 좀, 힘든 것 같으면 가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기분이 좋고, 일하는 게 수월해? ‘반장이네’ 하고, 그냥 딱 앉아서 지시만 하고, 그 사람이 힘들고, 바빠도 그냥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그게 다 알아요, 다 얘기가 들어온다고, 아무개 반장이, 출근하고 책상 앞에 앉았다고. 담배 피우고, 화장실 갈 때, 아니면 책상 앞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나는 이런 거보다도, 평등한, 공평한 걸 나는 많이 원했거든. 누군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나이 많고, 직위가 높고, 그걸 떠나서 불공평한 건 안 되지 않냐? 공평해야 되는, 지금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야. 사회도, 나라도, 다 이게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갈등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피해 보는 사람은 계속 피해 보고,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아주, 그런 게 아주 싫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나 많이 싸웠어. 노골적으

로 다 얘기는, 못하지마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재미있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면담자: 아까, 그 정전 말씀하셨는데, 정전되는 이유가 전력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구술자: 그리고 옛날에는 한전 전기를 썼어. 우리가. 그리고 옛날에는 한전도 많이 정전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원자: 그러면 한여름 기준으로 전력량이 얼마였어요?

구술자: 그런 거, 난 몰라요. 숫자 묻지 말아요. 나는 그거는 진짜 말하자면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런 전공을 한 사람이라든가. 나는 고등학교 나와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나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내가 배움은 짧지마는 그래도 현장에서 내 할 몫을 다 하고, 남한테 땀땀하게, 내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사는데, 뭐라 그럴까? 생산부장이었나? 그 사람이 내가 중간에, 내가 심지어는 관리자들도 하고도 싸웠어요. 나는 참 복이 없는 게, 내 선임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아니 자기 역할을 못하면, 남을 위해서 서포트(Support)를 못해주면, 자기 앞가림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 앞가림을 못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뭐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크게 침소봉대 돼서, 그냥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땀땀하게 따질 거는 따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맨날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어요. 하소연을. 그러면 내가 또 그 바로 밑에 반장인데, 내 선임이 있는데, 선임은 그걸 해결을 할 사람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장이나, 부장들한테, 건의를 많이 했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힘들게 하니까, 이런 편이 좀 봐달라.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러이러해서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아, 그러냐? 하고 포기를 할 텐데. 과장 같으면, 부장 핑계 대고, 부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못한다. 그게 부장이 할 일이 아니거든? 자기가 결정하고 보고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부장님이 안 되신대요?', 그럼 제가 부장님한테 가서 직접 건의하겠습니다', 이놈 새끼가 얼굴이 하얘져서, '아 반장님, 현장 내려가서 얘기하시죠'. 거기서 내가 폭발한 거야. 그래서 현장에 가서, 내가 소리, 소리 지르면서, '지금 당신들 이만 저만해서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가도 못 가고, 이렇게 지금 생산량 맞춘다고 이렇게 휴가도 못 가고!', 인원의 결원이 많았어요. 그때 젊은 애들이 못 견뎌서, 한 3명이 한꺼번에 그만뒀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근무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근을 하는 거야. 아까 것처럼, 저녁때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16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인원 보충해 달라 그러면서 현장에 사람을 끌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어. 이거 얘기하면 복잡하고 길어지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부장 핑계를 대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부장이 안 된다고 그랬냐?'고 말이야.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 이 간단한 걸 못 들어줘서 그러냐?'고 성질을 냈더니, 옛날에 그 동력과, 우리 과장님이 오더니, '한 반장 왜 그래?' 하면서, 커피 사 주더라고. 이만저만해서, 부장이 안 된다고 그래

서 부장하고 내가 면담한다고, 그랬더니 못 가게 하고, 면담을 못하게, 현장 가서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자꾸 끌고 내려가려고 그런다고. 진정하라고! 그렇게 씩씩대고 있는데 생산부장이 딱 나오는 거야. ‘한 반장, 왜 그래?’, ‘아니 부장님이 이만저만해서 안 된다’고 그랬다며요? 그랬더니 부장이 뻑쳐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김 과장, 그거 그렇게 해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될걸, 부장 핑계 대고, 부장은 알지도 못해, 보고도 안 하고 그래 놓고는, 자기가 부장 핑계 대고, 안 된다는 식으로 해. 그러니까 내가 열 받아. 나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됐는데도 답이 없어서, ‘먼저번에 건의한 거, 어떻게 부장님한테 결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장이 반대한다고 그전에, 부장한테 물어본다고 그럴 때부터, 나는 감을 잡았지. 이놈이 안 들어주려고 그러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있다가 물어보니까 부장이 안 된대.

면담자: 그러면 정전됐고 복귀할 때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구술자: 그거는 바로예요. 바로.

면담자: 그냥 차단기 내려진 거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구술자: 차단기 내려진 게 아니라, 우리는 각 공장에, 기계들, 현장에서 기계를 돌릴 온/오프(On-off) 스위치(Switch)가 있어요. 우리 일반 저런 것처럼, 그렇게 현장에서 돌리는 게 있고, 사무실에서 모니터(Monitor)로 마우스(Mouse) 해서, 클릭(Click)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켜지. 밸브(Valve)가 수동으로 된 거를 자동으로 다 오토(Auto)로 다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 거지. 그거는 뭐 5분, 10분 이내에 다 되는 거예요. 전기만 들어오면 바로 정상화 되니까.

면담자: 그리고 망초 폐수 과정이 혹시 있었나요? 폐망초 재활용 공정 과정에 혹시 있었어요?

구술자: 내가 망초 근무하다가 나중에, 또 공장을 3개를 맡았어요. 내가 이게 통합이 돼서. 시안산나트륨, 무슨 망초 그리고 염산, 아염산 나트륨 이렇게 세 개를 맡았었는데, 거기서 3개를,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내가 그 당시에 폐망초 재활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다시 리사이클(Recycle) 해서 썼는데, 이거 다시 나온 거를 그러니까 이 무수 망초 만드는 원료 탱크가 있어요. 용해 탱크가. 그러면 다시 그쪽에다 다시 넣었어요. 재활용해서 썼거든요? 그걸 딱히 어디 탄 데다, 쓴 거는 기억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망초 생산하는데 다시 리사이클(Recycle) 시켜서 회수해서 계속 공정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그건 망초니까 완전히.

면담자: 그러면 원료의 몇 퍼센트 정도가 재활용되었나요?

구술자: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저 뭐 트러블(Trouble)이 한 번 나서, 또 싸움이 붙었어요. 막 언쟁이 붙었어. 그래서 근거를 서로 내밀고, 그러면 나는 내 주장하고, 상대는 상대 주장하고, 근데 결국은 내 말이 맞는 걸로 됐어요. 근데 사과도 안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

데 그 당시에 생산과장이었나? 그 부장이나? 그 사람이 나를 밑게 봤나 봐. 말하자면,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저는 대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내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땠는지, 한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묻더라고. ‘현장 반장의 덕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더라고, 현장 반장은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너 많이 아냐? 이런 식으로, 그럼 너 현장 경험이 있는 내가, 말하자면, 내가 전문적인 용어는 전문적인 건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생산하는 건 내가 자신 있게 해도, 무슨 화학 방정식이 어땠고, 뭐 어땠고 저렇고,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야. 그런 거 하나까, 아무래도 내가 달라지. 기계과도 공과 기계과를 나왔는데, 그것도 3년 배우지 않고, 1년밖에, 1학년 때만 봤으니까. 내가 사실 아무것도 아는 건 없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물어봐. ‘네가 뭐 화학에 대해서 뭐 아냐?’, ‘네가 뭐 얼마나 아냐?’,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자존심 상해서, 그러면서 ‘반장의 덕목이 뭐냐?’, ‘반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뭐냐?’고 하니, ‘많이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은. 전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마디 했어요. ‘물론 많이 알면 좋겠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좋겠죠. 그런데요. 현장 반장은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판단, 신속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수학 잘하고, 방정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공정의 흐름만 알면 되고, 현장에 뭐가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이것만 알면 되고, 이머전시(Emergency) 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면, 현장에서는 이기거든요. 반장은. 그 이상 뭘, 더 바라냐고? 현장 반장한테, 고등학교 나온 농한테, 막말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당시에, 과장인지 부장인지 모르는데, 언제 한 번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밑게 봤겠지.

면담자: 훌륭하십니다.

구술자: 훌륭한 게, 아니라, 좀 까칠한 성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요. 진급이 늦었어요. 반장 달 때는, 그냥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보통 10년 빠르면 8년이면 달았거든? 근데 우리는 이 적체가 돼서, 내 동기들은 진급을 늦게 했어. 그랬는데, 반장 달고 근무하면서, 내가 반장 책임을 맡고 일하다 보니까, 좀 그런 업무적인 트러블(Trouble)이 좀 있긴 있었지.

면담자: 혹시 그 현장 근무하시면서 안전 교육은 어떻게 받으셨고 착용하신 보호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술자: 안전 교육은 정기적으로 받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고. 그것도 회사 강당에서 전 직원 다 모여 집합 교육을 받죠. 그건 법적으로 다 시간을 다 채워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다 받는 거고. 그리고 안전모도 다 지급이 되죠. 우리 초창기에는 안전모가 벽에 걸려만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지. 쓰지를 앓았어요. 그때만 해도 안전 개념이 없어서, 기계가 돌아가고 시끄럽고, 쇠덩어리인데도, 안전모 안 쓰고, 그냥 다녔다니까. 우리 쪽은 그 콤프레이션

(Compression) 소음 때문에 귀마개는 했어요. 귀마개는 하고 했는데, 안전모라는 건 쓰지 않았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반장이라는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16)포마드(Pomade)를 발랐어. 포마드(Pomade)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젤이라든가, 왁스 같은 그런 거예요. 옛날 포마드(Pomade) 짝 발라서, 반짝반짝하고 구두도 그냥 구두 코가 맨날 반짝 반짝해 그러니까 안전화도 안 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외출하고 그냥 구두 신고, 머리 포마드(Pomade) 다 바르고 그러고 근무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트러블(Trouble) 나면 그 사람들은, 손가락만 갖고 이러지.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을 막 뛰어가고, 조치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저거 열어', '저거 잠가', 소리 지르면서 손가락질만 했지. 그 정도로 옛날에 반장들이 파워(Power)가 좋았다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요새는 다 그냥 이렇게 살지.

면담자: 그러면 그 동양화학의 여성 노동자도 계셨나요?

구술자: 있었죠.

면담자: 어떤 부서에 있었나요?

구술자: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전화 교환원, 내가 입사하는 그때 간호사, 그리고는 사무실 사무원들이죠. 비서라든가, 경리과 직원이라든가 자재과 직원이라든가, 여성이죠. 말하자면 여직원들이 있어서, 전표 처리 같은 거 하고.

면담자: 그러면 안전 교육은 월 1회 집합 교육으로 받으셨는데, 혹시 매일매일 현장에서는 구호라든가? 혹시 있었나요?

구술자: 한때는, 저런 걸 했어요. 요새도 TV 보면 가끔 나오는데,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안전 구호 같은 거, '좋아, 좋아, 좋아, 안전 좋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몰라요. 하여간 나도 그런 식으로 안전, 어찌고 하여 그런 비슷하게.

면담자: 구호를 하죠.

구술자: 가끔가다 아침에 보면, 건설회사 현장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것도 한때, 잠깐 했어요. 오래 안 했어.

면담자: 1년?

구술자: 그냥 막 1~2년밖에 안 가.

지원자: 지금도 계속하는데요?

구술자: 하는 데는 하는데, 우리 화학 공장은, 특성상,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아침에 다들 출근해서 다 모이잖아요. 우리는 교대 근무다 보니까, 현장에서 교대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시키니까 했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

지원자: 그래서, 단장이나 반장들이 해요. 그렇죠?

면담자: 우리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잠깐.

---

16) 포마드(Pomade)는 헤어 스타일을 가꾸는데 사용하는 기름지고 왁스 같은 물질이다. 영어로는 포메이드(/pɒ'meɪd/)라고 발음하나, 연고(Ointment)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단어인 포마드(Pommade)로 발음하기도 한다.

지원자: 요즘은 안전을 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음주 측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62세 이상 되면 못 들어가요. 현장에.

구술자: 지금, 군산 공장은, 출근할 때 휴대폰 카메라에 스티커 다 붙이고, 음주 측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어땠는 줄 알아요? 술 먹고 들어와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나는 술을 어울려서 먹긴 먹어도 좋아서 먹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7)석근, 18)야근에는 19)조근, 아침 근무할 때는 다 사무실이고, 높은 사람 다 있으니까 못 먹지. 근데 오후 근무라든가 야근하면 술 많이 먹고 들어와요. 우리는 술 심부름했다니까요.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은 입사해서, '나가서 담배 사와라', '술 사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출근할 때 술을 싸 들고 와요. 그냥 이거 뭐 다 알 거예요. 그냥 뭐 모르는 척 눈 감아서 그렇지. 위에 사람들도 다 알 거라고, 옛날에는 문화가 그랬어요. 현장에서는 그냥 들어갈 때 그냥 술, 안주 사서, 들어가서 먹고 자는 거예요.

면담자: 그럼 근무는?

구술자: 그냥. 그런데 그 근무자들도 일하다가 졸리고 피곤하지 않냐고? 깜빡 자다, 탈 없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깜빡 잤는데 일 터졌다, 그건, 대형 사고 터지는 거지. 그때는. 시말서 쓰고, 경위서 쓰고, 그런 사람도 많지.

면담자: 그러면 혹시 그 공장 내에 식당이 있었나요?

구술자: 식당이 공장 내에 있지 않고 기숙사에 있었어요. 기숙사 밑에 식당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면담자: 그러면 근무하시다가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초창기에는 아저씨들이 리어카로 도시락 배달을 해줬어. 왜냐하면 우리는 자리를 못 뜨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365일 돌아가니까. 1년에 한 번, 대(大) 정비할 때마다, 한 4~5일 끄거든요. 대(大) 정비할 때, 그때 외에는, 우리는 기계가 풀가동하니까.

지원자: 좀 전에 여쭙았던 것이, 전기가 달린다는 것은, 한여름에 셧다운(Shutdown)을 하잖아요? 그 기간에는 보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전기가 달려서 그런다기보다도, 공정에 스케일(Scale) 끼는 거. 말하자면,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 깨끗이 다 하고, 튜브(Tube)라든가 이런 데 스케일(Scale)이 다 끼게 돼 있거든요? 그걸 다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셧다운(Shutdown) 하는 거니까.

지원자: 그건 외주업체가 했어요? 아니면은 직접?

구술자: 외주업체도 들어오고, 우리가 또 직접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맡아서

---

17)~19) 조근(朝勤), 석근(夕勤), 야근(夜勤)은 3교대 출근 형태의 명칭이며, 동양화학에서는 조근 07:20~15:00, 석근 15:00~22:15, 야근 22:15~07:20으로 근무하였다.

하는 게 있고, 외부 주는 거는,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면담자: 근데 식사는, 전체 직원들이 배달해서 먹었어요? 아니면?

구술자: 아니, 현장 교대 근무자만.

면담자: 식당은 기숙사 식당에서?

구술자: 기숙사 밑에 식당이, 기숙사가 3층 건물이었고, 그 밑에, 이쪽에서 보면 지하인데,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층수로는 지하인데, 거기가 아래로 내리막길이니깐, 거기 1층이나 마찬가지. 거기에 식당에 있었어요.

면담자: 일반 직원들은 거기서 먹고, 교대 근무 직원들은 배달받아서 드셨어요?

구술자: 교대 근무자들은 자리를 비우지 못하니깐, 도시락 배달을 해 줬어요. 그래서 사무실 책상에서 먹고, 그렇게 했고, 그것도 잠깐이요. 나중에는 교대로 먹었어요. 식당에 가서. 순차적으로 만약에 둘이서 근무한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서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또 점심시간에 또 이머전시(Emergency) 걸리면, 밥 먹다 후다닥 뛰어가기도 하고.

면담자: 처리하고 오셔서, 드시고 하셨겠네요?

구술자: 그런 적도 있었고.

면담자: 요즘에는 식단을 점수화하잖아요? 직원분들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그때는 평가가 아니고 설문지.

면담자: 아, 설문지? 그래서 개선되는 점이 좀 있었나요?

구술자: 개선이 되기는 되는데, 흡족하게는 안 되어요. 그 많은 사람 비위를 어떻게 다 맞춰? 그러니까, 좀 손쉽게 가능한 거는, 개선되는데, 가장 원천적인 것만.

면담자: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구술자: 글썄요. 부식은 잘 나왔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운영할 때도, 먹을 만치 나왔는데.

면담자: 디저트를 달라?

구술자: 글썄요. 요새 MZ 세대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때는 진짜, 주는 대로 먹었지. 뭐를 달라, 뭐 어찌라. 해보지는 않았어요.

면담자: 그러셨구나. 그럼 지금까지 근무하신 기업이 흑립기계, 대원광업, 동양화학이 있었고, 그리고 렌터카에도, 지금은 (주)동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디가 가장 좋으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가장 좋은 거요? 지금이 제일 좋죠. 제일 행복하죠 [활짝 웃으며].

면담자: 아, 그러세요?

구술자: 보셨죠? 이유는요. 제 근무처, 이런 직장이 없어.

면담자: 네. 저도 봤습니다.

구술자: 여기는, 진짜 뭐라 그럴까, 뭐 힘들 게 없고, 일단은 무슨,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주하는 사람들, 직원들하고, 차량만 신경 쓰면 되고, 그렇다고 누가 일단 터치(Touch)하는 사람이 없고, 아주 좋아요.

면담자: 보스가 없으니까, 상사가 없으니까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럼 (주)동흥이 DCRE(Dynamic City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인가요?

구술자: 아, 이게 이 동흥이라는 회사가, 지금 사장님이, 예전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뭐 YMCA 어찌고저찌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지금 목사도, 겸직하고 계시는데, 내가 봐서는 정상적인 목사는 아닌 것 같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양반인데, 이 양반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돼서, 뭐 사업할 게 없나? 했는데, 우리 왕 회장님, 돌아가신 왕 회장님, <sup>20)</sup>이회림 회장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었죠. 그 회장님 아는 사람 연줄로 해서, 용역회사를 차려서, 경비를 했나 봐요. 그때부터,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도 쳐내지도 못하고, 지금 그 양반이 80 중반이 넘었을 거예요.

면담자: 회장님 연줄이시구나!

구술자: 근데, 왕 회장보다는 한참 아래죠. 근데, 연줄로, 왕 회장 연줄로 아마 그때 했나 봐. 내가 여기 속해는 있지만, 평은 안 좋아요. 이 양반이.

면담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5군데? 6군데에서 근무를 계속하셨는데, 직장을 선택하실 때, 지속적인 안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그 이유는? 글썄요. 나는 그래요. 평범한 삶이 제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돈 많은 사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난 부럽지 않더라고. 사실 내 동창이 지금 부산대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개, 형제가 삼 형제예요. 개 어머니가 옛날에 이화여전을 나오셨어. 개 아버지는 수도국에 근무하셨고, 그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아들 셋이 다 서울대에 갔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냐고? 앞집 삼 형제는, 아들이 다 대학을, 서울대를 갔는데, 이 아들이란 놈은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나와서, 재수한다고 <sup>21)</sup>끔찍대다가 그나마 때려치우고. 우리 때는 대학교 가면 <sup>22)</sup>배지를, 대학교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배지가 있었어요. 그걸 달고 다녔고 교복도 입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버스 타고 가다가, 대학교 배지하고 있는 거 보고, 속상해서, 버스에서 가시다가 내리셨대.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20) 화학산업의 기초 재료인 소다회를 국산화해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기초를 다진 동양화학의 초대 회장이다.

21) 큰 눈을 세계 감았다 떴다 하다.

22) 신분 따위를 나타내거나 어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옷이나 모자 따위에 붙이는 물건이다.

면담자: 속상하셔서요?

구술자: 속상하니까, 나는 그래도 평범한 삶이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욕심부리지 마라. 그저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안 아프고 살면, 제일 행복한 거, 탈 없이. 우리 주위에 자식 하나 낳았는데, 어디가 아파서, 그거 평생을 케어(Care)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 삶이냐고? 피곤하고. 그리고,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계시면, 얼마나 그 힘든 삶이냐고? 그것만 아니라도,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가 지금 98세인가? 지금도 정정하세요. 이번에 치매 초기 판정받아서, 왜냐하면 일부러 받았어요. 너무 집에만 계시니까, 집에 딸하고 낮에 둘이 있으면,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딸하고 식사하시고, 텔레비나 보시고 동네 잠깐 나갔다가 와서, 무료하지.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내 친구 어머니가 갔더니, 좋아졌다고. 우리 어머니를 거기 보내려고 했더니, 아주 좋다고. 머리도 깎아주고, 운동도 하고, 율동도 하고, 안마도 해준다고, 좋다고, 그러면서, 표정이 밝아지신 거야. 거기 가서, 물론 중증 환자들은 따로 하고, 정상적인 분들은 따로 테이블 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한 여섯, 일곱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하고는 대화도 하면서, 집안 얘기도 하면서,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신나셨어. 신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 건강하시지, 자식들, 손주들 다 아픈 데 없이. 그냥 뭐 특출나게 잘난 건 없지만, 평범하게 다 잘살고 있으니까, 너무 나는 이 안정적인 삶이 좋지. 내가 무슨 잘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럴 그릇도 안 되지마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연예인 애들, 사기 결혼 당하고, 재산 날리고, 고생하고 이런 거 보면, 한때는 잘 나가도, 저게 뭐냐? 저렇게 굴곡지게 사는 게. 이런 평범한 삶이 좋다. 나는 그래서 평범한 걸 좋아해요. 이 평범함 속에서도 기쁜 일이 많거든. 사실.

면담자: 소소한 행복이, 많죠. 그리고 제가 사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OCI 풀네임(Full name)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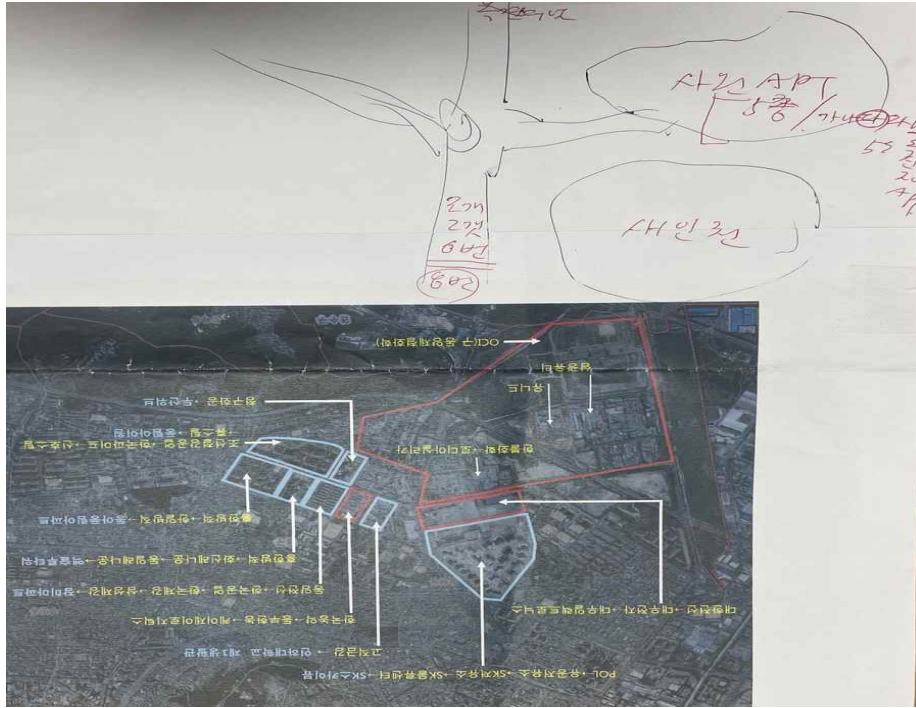
구술자: 글썄요. 우리는 회사 들어갈 때, 약식이지만 시험 보고 들어가고, 입사하고 나서도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우리 때만 해도, 요새 같으면 어떻게 모르겠지만, 우리 들어갈 때도 면접 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영어로 말하라.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심지어는 입사하고 나서는 우리 왕 회장님 이름을 한자로 써라, 그런 시험도 보고, 우리 때는 가능했지, 그게. 지금 같으면 인권 침해다. 이럴 텐데. '내가 왜 회장 이름을 한자로 써야 되냐?' 내 이름도 한자로 못 쓰는데, 이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입사하고도 내 플랜트(Plant)에 대한 라인도라든가, 이런 거 교육받고, 시험도 보고 막 그랬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입사 초기에는.

면담자: 그러셨군요.

구술자: OCI 약자는 당연히 알지. 시험에 나왔으니까,

#### 4. 지역사회와 함께 (01:44:48 ~ 02:05:55)

면담자: 동양화학 사택에서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였나요? [지도를 건네며].



구술자: [지도를 보면서], 이게 23)새인천 풀장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있어. 어디냐 하면, 옥련 터널 있죠? 옥련 터널, 이쪽으로 쪽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코너 돌면 여기, 옛날에 새인천 풀장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사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24)조개 고개 쪽이에요. 여기가 조개 고개 쪽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쪽 가면, 여기 옥련 터널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옥련 터널에서 보면 좌측이지.

지원자: 옛날에는 여기, 지금 8번 다니던 새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구술자: 6번 다니던 게, 이거밖에 없어. 논두렁, 다 논이었고 근데, 여기가 큰 도로가 나면서 옥련동 아파트촌이 생기고.

지원자: 사원 아파트가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면담자: 혹시 거주 자격이 있었나요?

구술자: 거주 자격은 근속 10년 이상, 그렇게 알고 있어요.

면담자: 근속 10년 이상. 그러면 여기 동양화학에서 사원 아파트까지 어떻게 출퇴근하셨어요?

23) 인천의 옛 수영장 중 하나였던 새인천 풀장은 옥련동 조개 고개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다. 동양화학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운영했던 야외 수영장으로, 시민들에게 여름철 인기 있는 놀이터였다.

24) 물텀병이 거리로 유명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송도고등학교쪽으로 가는 길, 시립사격장 초입새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배기를 칭함. 조개 고개라는 이름은 그 아래편에 조개 조합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술자: 거기는 걸어서 출근하고, 자전거 타고도 출근하고, 가까우니까.

면담자: 걸어서 가시면 얼마 정도 걸리나요?

구술자: 걸어서 가면 한 10분이면 가죠. 10분. 천천히 걸으면 한 15분.

면담자: 다른 아파트가 아니고 사원 아파트에 사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술자: 내가 신혼 때는 청학동에서 단칸방 전세 살다가 150만 원짜리, 방 하나, 그런 전세 살다가, 만수동 주공 아파트를, 그 딱지 철거민들. 왜 딱지 있잖아요? 철거민들 입주권 그 딱지를, 재개발, 그걸 사서, 그때 거기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사원 아파트 자격이 되니까, 들어왔죠.

면담자: 몇 평 정도였어요?

구술자: 18평, 큰 평수가 22평인가? 24평인가? 잘 모르겠네요. 거기는 말하자면 간부들. 과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20 몇 평을 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18평을 썼고.

면담자: 그러면은 방 2개? 3개였나요?

구술자: 방이 두 개요. 안방이 커요. 안방이 제법 커. 침대 놓고 널찍했으니까. 아니 방 작은 거 하나 있고, 거실이 없어요. 거실은 18평 이상. 그냥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식탁 놓을 정도. 식탁도 꽤 큰 거 났는데도 자리 충분하지. 그러니까 거실이 없는 대신에 공간은 좀 넓어.

면담자: 몇 층 건물이었나요? 몇 동이었나요?

구술자: 5층 건물이에요. 거기는 가, 나, 다, 라, 마. 나는 다동에 살았고, 마동은 독신자 아파트예요. 총각들이나 아니면 집이 먼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도 있었고.

면담자: 선생님, 동양화학에서 새인천 폴장 운영했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혹시 기억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나는 거기에 대한 기억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막내 삼촌이 여기 관리를 했어요. 서무과에 근무하실 때, 7~8월에 여기 파견 나가서, 총괄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돈이 따르잖아요? 서무과니까 이제 관리부, 경리과, 서무과 다 관리부 쪽이니까 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입장료 받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식당,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또 월세를 받잖아요? 돈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름대로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해. 이 사람은 지금 원로 장로시거든, 장로 수십 년 하시고, 내가 봐도 우리 작은아버지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예요. 우리 조카들이고 말고도, 많은 사람을 취직시켜 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덕을 많이 쌓으셨어.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사람을 차별을 안 했어요. 옛날에 그 현장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용자라고 있었어요. 고용원이라고, 일용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깎듯이 했는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내가 조카인지는 모르지 이 사람들은.

면담자: 작은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한자, 도자, 회자. 고용원이 나한테 작은아버지 칭찬을 하더라고. 내가 조카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계장님, 그때 계장이셨는데, 한 계장님은, 우리한테 너무 따뜻하게 해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막, 대하는데, 우리 한 계장님은, 우리랑 똑같이 대해 주신다고, 아주아주 고맙다고. 진짜 사람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제일 비참하고, 화가 나는 거거든. 근데 진짜 그 시절에는 무시 많이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막 대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했거든. 깔보고.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 새인천 폴장 하면은, 작은 아버님이 떠오르시네요.

구술자: 그렇죠. 우리 작은아버지가 관리해서. 내가 공짜로 가서 물놀이 수영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사촌 누나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이 그때 유치원 한, 다섯 살, 네다섯 살이었나? 자매가 되게 예뻐어요. 우리 누나가 얼굴이 참 예뻐어요. 옛날에 배우 한다고 막 그랬거든. 영화배우 한다고 그러다가 우리 큰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머리 깎이고, 그 정도로 인물이 좋았어. 그래서 여기 딸들이 되게 예뻐어요. 그래서 내가 개네들 얼마나 예뻐했는지, 커서 연예계 쪽으로 나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네들 데리고 내가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애네가 지금 커서 연예계로 안 빠졌는데, 애 딸이 연예계로 빠졌어. 지금 고등학생쯤 됐었나? 중학생 때 연습생 그래서, 경연대회도 나가고, SBS 문자 왔더라고. 이거 투표하는 거 좀 찍어주라고. 딸도 이쁘더라고. 자기 엄마도 예쁘지만 애 엄마는 또, 큰딸은 축구 선수하고 결혼했더라고. 결혼식 때 갔는데, 메이플 호텔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천수, 뭐, 다 왔어.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 다 왔더라고. 그때 이 누나, 사위는 중국 가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 당시에.

면담자: 유전자가 훌륭하십니다.

면담자: 애는 스튜어디스 하다가 만났을 거야. 아마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술자: 그리고 선생님, 동양화학에서는, 25)송암미술관 운영하였고, 송도고등학교 운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학의 사회적 기여가 크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36년 재직하셨잖아요? 재직자로서,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자: 동양화학에 대해서요. 지금은 많이 옛날하고 다르지마는, 예전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많았죠. 거의 그래요. 보면 다 인맥으로 들어와서, 설불리 누구 욕하면 큰일 나.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 이 송암미술관은 그 왕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미술품을 갖다가 전시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금이라도 가보면, 가겠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가게 되더라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송도고등학교 나왔을 거예요. 동양화학은 그리고 이게 인맥으로 다 이어져 있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여기 나왔다고 그런 것 같

---

25) 송암미술관은 동양화학이 ①1989.11 서울 종로 수송동에서 개관 → ②1992.10.31 인천 학익동으로 이전 → ③2005.06.13 인천시에 무상 기증 → ④2007.12 인천시립박물관 분관 편입하였다.

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복이시거든.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성균관대를 다닐 때 우리 집에서 다녔어요. 나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인데, 옛날에 공무원이 무슨 보너스가 있어? 무슨 월급이 그냥 박봉에 사는데, 동생은 대학을 다니는데, 돈으로 후원을 못 하니까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고학하다시피 그러면서 대학을 다녔던 것 같아요. 2학년인가까지 다니다가 졸업을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 2학년 다니고 마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졸업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그래서 나를 참 예뻐하셔요. 우리 작은 삼촌이 나한테 제일 많이 신경을 써주셔, 우리 작은 어머니도 그렇고.

면담자: 선생님은 또 작은아버님을 존경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지금 동양화학 공장 부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바로 옆에서 또 공사 현장을 직접, 보시고 계신데, 어떤 감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회가 좀 새로 우실 것 같아서요.

구술자: 새롭죠. 청춘을 다 보냈는데, 거기서 청춘을 다 보냈는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상당히 좀. 나는 여기 와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두 번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옛날 조개 고개, 좁은 도로에 버스 한 대 다니는 그런 도로가 있었는데, 26)6번 버스. 이 옥련 터널이 뚫리면서 그때 많이 변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변하는 거 아니야? 신도시가 하나 생기니까, 이게 공장 부지니까, 어차피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지. 주거지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추억은 많죠. 거기서 매일 보고 살았던 거니까. 여기, 사진에도 좀 있는데 내가 이거 하는 덕분에 옛날 생각을 좀 했어요. 사진 앨범 짝 들치면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진은, 멋있게 잘 나온 게 있어서,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거는 인터뷰와 상관이 없으니까, 회사에 관련된 것만 갖고 왔어. 근데 회사에 관련된 거는 못나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지?

면담자: 추억이 많은 곳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네요?

구술자: 저는 받아들여요. 지나가면 다 추억에 묻히는 거지. 어떻게 해요? 거스를 수 없는 거지.

면담자: 아까 큰 변화가 그러면 지금 동양화학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거고, 거기 조개고개에 큰 길이 나서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구술자: 내가 느끼기에는 그 지역의 변화는 그게 제일 크게 느껴졌어.

면담자: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금 제가 쪽 사전 인터뷰 때도 뵈었고 본 인터뷰 때도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끈기 있게 오래 하시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

26) 인천 송도유원지 B ~ 선학역 간을 운영하였으며 본문에서 언급한 지역의 주요 정거장은 옥련 고개 A-옥련여자고등학교-조개 고개-동양화학 B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6월 기준).

구술자: 남들이 보면 그렇지.

면담자: 이런 성향을 갖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구술자: 성향이요? 글썄요. 나는 그냥 그냥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 그냥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고 팔자소관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팔자고 받아들이는데, 아무튼 나는 탈 없이 이렇게 여태껏 사는 게 감사하게 느끼는 거죠. 글썄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공부할 때, 무슨 변화가 없어서, 대학이라도 가고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지, 모르지만, 내가 아까 하다 만 얘기가,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앞에 서울대, 내 동창, 3형제가 갔잖아요? 서울대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속상해하셔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예쁜 손주들하고 같이 살아요? 지금 우리 딸하고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 엄마, 아버지도 내가 모시고, 한 5, 6년을 내가 여기서 살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내 친구 얘기하면서, 그 친구, 형, 동생, 서울대 나오면 뭐해? 삼 형제가. 부산대 가서 교수한다고, 처자식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그게 뭐, 서울대 나오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뭐 하냐고? 엄마,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나처럼 이렇게 즐겁게, 안 아프고 탈 없이 손주들, 사위, 딸하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이지. 그거 처자식은 서울에 살고, 지는 혼자 부산에 가서 교수네, 하고 떨어져서 십몇 년을 지금 그러고 산다는데, 그게 뭐가 행복한 거냐고? 둘째 아들은 또 나처럼 이혼했대. 이혼해서, 혼자 산대. 거봐, 뭐야? 서울대 나와도 이혼하잖아. 잘 났다고 뭐, 다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엄마, 나는 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그렇게 위로를 했어.

면담자: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선생님에게 동양화학은 나의 청춘이다?

구술자: 그렇죠. 청춘이죠. 많이 모든 걸.

면담자: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섭외 받으시고 어떤 기분이 드셨고 지금 인터뷰 마치는 소감이 또 어떠시고 이 기록물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그래요. 나는 맨 처음에 인터뷰 섭외 받는다는 게, 인터뷰 섭외가 아니라, 동양화학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간, 내 옛날 생각도, 추억도 살아나고, 그리고 뭐 하찮은 애깃거리지만은, 이게 또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의미가 있고, 어쨌든, 이 기록이 나중에 사람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도 볼일이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감회에 또 빠져들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네.

면담자: 말씀,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술자: 많이 부족해서, 제가 도움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개인사를 얘기하려면, 내가 얘기를 잘하겠는데, 이거 회사하고 막 얽혀서 얘기하려니까 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면담자: 네. 그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